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개장 한달 만에 3000명 돌파

퓨처바이크·드론·우주여행·해저탐험 등 VR 12종 스크린사격·스크린축구 등 AR 2종 최신기기 인기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VR(가상현실) 체험장'이 개장 1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3000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개장한 VR체험장이 지난 23일 기준 누적 이용객 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의 결과로 이에 따른 이

료 수익도 2700만원을 넘어섰다.

롤러코스터, 해저탐험 등 VR을 비롯한 스크린사격, 스크린축구 AR(증강현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기가 갖춰져 있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함평군 관계자는 "엑스포공원에는 VR체험장뿐 아니라 야간경관, 자동차극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마련돼 있다"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가족, 친구와 함께 함평엑스포공

원으로 피서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은 퓨처바이크, 드론, 우주여행, 해저탐험 등 VR 12종과 스크린사격, 스크린축구 등 AR 2종의 최신 기기가 갖춰져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함평=김정섭 기자



순천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가족사랑 나눔터' 운영 재개

순천시는 오는 27일 재가 암 환자와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가족사랑 나눔터'를 운영한다.

이번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한 재가 암 환자의 건강관리 공백 최소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무기력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함께 다도체험·술발길 걷기·족욕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은 서로간의 암치료 경험과 식이요법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해 암 재발 방지를 돕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역 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 모임 외에도 영양제 제공, 주기적인 건강상담, 투약 교육, 가족 교육 등 1대1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은 매월 20여명씩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조은익 기자

보성 제3기 군민 SNS 서포터즈 모집

내달 10일까지 신청

보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제3기 군민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민 SNS 서포터즈는 2022년 12월 말까지 6개월간 활동하면서, 축제·행사 홍보, 지역 명소와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 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 기준을 충족한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인센티브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활동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s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를 내려받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하며,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이어야 한다. 월 3건 이상의 게시글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각종 축제 및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성 홍보맨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 SNS 서포터즈는 6월 말 결정되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연락할 계획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진도 신재생에너지 기반 투자개발·상생발전 협약식

진도군·투자기업·진도군민 상생발전 기대

진도군이 24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투자개발 및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개발사업을 통해 진도군-투자기업-진도군민의 상생발전·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해 김신남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노스랜드 파워 코리아 디벨로프먼트 한승수 한국대표, 퍼시픽오 에너지코리아 조동욱 한국대표, SK E&S 차태병 부부장, TCRK 에너지 김병철 CEO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진도군 투자기업 대표 7명과 김길복 진도군 변영회 회장, 이광희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 회장, 변영경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양선우 진도청년회의소 회장 등 진도군민 7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각계 대표 인사말씀, ▲투자내용 소개, ▲진도군-투자기업 MOA 체결, ▲진도군민 7개 단체 대표-투자기업 상생발전 협약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생협약서 서명에 앞서 7개 투자기업 대표는 "진도군 투자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진도군민 7개 단체 대표는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진도군 투자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업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진도군 정주인구 5만 명 달성 등 진도군이 기업들과 함께 계속해서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광양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졸업사진비 확대 지원

시어린이보육재단, 내년 초등학교 취학아동 1300명 지역 내 사진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역 내 사진관과 연계해 어린이집·유치원 재학 만 5세 아동 1,300명에게 졸업사진비 1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아동은 지역 내 보육시설에 재원 중이고,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2023학년도 취학 예정 아동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졸업사진비 지원사업은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 3회에 걸쳐 3,925명의 아동에게 1억 9,2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역 내에는 대형 사진관이 적어 졸업사진비가 다른 지역 사진관으로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올해부터는 보육재단 기금이 지역 내에서 지출하도록 지역 내 사진관에에만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었고, 1인당 지원금이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타 지역 사진관 이용 제한으로 광양 지역 사진관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아동이 재원 중인 보육시설로 신청하며,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7만 원 이내이고 보육시설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강용재 상임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유년기의 빛나는 순간을 졸업사진비 지원을 통해 축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은익 기자

"신안 퍼플섬에서 퍼플디저트 맛보세요"

퍼플디저트 기술전수 교육 실시 '큰 호응'

신안군이 지난 23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안좌면 퍼플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카페 운영자를 대상으로 퍼플디저트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지난 모집 공고를 통해 관내 영업 중인 카페 운영자를 신청받아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특산물인 천일염과 팥을 활용하고 퍼플섬을 입힌 디저트 3종 메뉴를 기술 전수하는 과정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가 업체들은 신안 명품 천일염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퍼플빵 가공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초·심화 과정으로 반복된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보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퍼플디저트 교육으로 신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맛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색을 입힌 특화빵을 개발하여 퍼플섬에 걸맞는 매력적인 퍼플 디저트로 가공 상품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박정태 기자

무안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착수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 마련...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 구축

무안군은 관내 8개 읍·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등 시설물의 위치 정보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는 도로굴착 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지하매설물 확인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총 연장 179.232km에 대한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차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해 일로읍 도로 0.651km, 상수 10.109km에 대한 도시기준점 17점을 설치하고 조사, 탐사, 측량을 거쳐 10월 말까지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통신, 가스, 전력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자료를 공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해남 황산 와등·화원 척북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조기 완공

계획대비 6개월 앞당겨져 150ha 수혜

해남군은 황산 와등지구와 화원 척북지구의 받기반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해져 완공 기한을 6개월여 앞당기게 됐다.

총사업비 43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농로 4.6km, 배수로 4.9km, 저류조 9개소를 설치하는 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적 분할 및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확정 등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10월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민들의 양보가 더해져 이루어낸 결과로 그동안의 불편을 참아주신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완도 신지명사십리 '오감치유 명상' 성료

맨발로 해안가 걷기 등 다채... 코로나블루 힐링 프로그램

완도군이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선보인 '오감치유 명상'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이틀간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봄, 바람과 힐링'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구와 하나 되는 오감치유 명상'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과 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감치유 명상, 꽃차 시음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오감치유 명상은 몸 안의 활성화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맨발 걷기, 바다 스트레칭, 파도 소리 들으며 명 패리기' 등으로 이뤄졌다.

맨발 걷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안성맞춤인 명상이다. 해안가를 걸으며 해양 에어로졸과 시원한 바람, 모래의 촉감, 파도 소리, 해풍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한 참가자는 "맨발 걷기 명상, 명패리기 명상을 하면서 자연에 집중하다 보니 불필요한 생각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봄, 바람과 힐링' 6월 해양치유 체험을 24일과 25일 진행한다. /완도=이두식 기자

화순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화순군이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 3500원, 2인 가구 14만6500원, 3인 가구 18만4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9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안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는 10월 12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 지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지원받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영원 기자

광양 장미철 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일제 점검

광양시는 장미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재해를 대비해 23일~27일(5일간) 지역 내 배수펌프장 20개소에 대한 시설물 점검, 펌프 시험가동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일제 점검해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배수펌프장 운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 담당자, 펌프 제작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검·점검·제진기 등의 기계 시설과 비발발전기·수배전반 등의 전기시설, 유수지·배수로 등의 관리 상태에 대해 정밀점검을 시행하고자 한다.